

『실낙원』에 나타난 밀턴의 하나님 정당성 옹호

신 현 호(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밀턴(John Milton)이 자신의 장편 서사시 『실낙원』(*Paradise Lost*)에서 하나님의 정당함을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기독교 전통의 교육을 받은 밀턴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작가 인생 전부를 통해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밀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회복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여 영원한 낙원으로의 인도에 있음을 『실낙원』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실낙원』에 대한 주요 관심을 인간의 타락만이 아닌 타락 후의 회복까지 연결시켜 고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입증하고자했던 밀턴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실낙원』에 나타난 인간 회복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부분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회복의 과정에 중심을 두고 다루어진 것에 비해 본 논문은 미카엘의 비전에서 보여 준 전 인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는 죽음과 영생에 대한 본질적 의문에 진지한 해명을 추구하고 있는 『실낙원』의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주제어 ; 밀턴, 『실낙원』, 섭리, 변증, 타락, 구속, 회복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밀턴(John Milton, 1608-1674)이 자신의 장편 서사시 『실낙원』

』(*Paradise Lost*)에서 하나님의 정당함을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밀턴은 『실낙원』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복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과 고통을 가져오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해 인간이 죄로 인한 멸망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실낙원』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낙원 상실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더 나은 축복된 자리로 회복시키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쓴 것으로 밀턴은 이 같은 목적을 실낙원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실낙원』서두 소위 서사시 전통에 따르는 ‘기원’(invocation)부분(1권 1행-26행)에서 밀턴은 “인간 최초의 불순종과 금단의 나무열매, 그 치명적인 맛이 사망을 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에덴의 상실과 더불어 이 세상에 가져다 주었다.”(Of man's first disobedience, and the fruit/ Of that forbidden tree, whose mortal taste/ Brought death into the world, and all our woe,/ With loss of Eden.)고 말한다.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 위대한 자가 우리를 회복시켜 축복된 자리를 다시 얻기까지” (...till one greater Man/ Restore us, and regain the blissful seat.) 이 세상을 잠시 지배할 뿐이기 때문에 밀턴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주장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당화 할 것”(I may assert Eternal Providence, / And justify the ways of God to men)이라고 『실낙원』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¹⁾ 밀턴은 『실낙원』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함을 성경에 기초한 문학적 상상을 통해 변증하고 있다.

『실낙원』의 서문에 전개된 예표론적인 형태는 “최초의 인간타락으로부터 더 위대한 자 그리스도의 승리까지, 지상낙원의 상실에서 영적인 행복을 회복하기까지, 낡은 외적 성전으로부터 정직한 영으로 세워진 내적성전”으로 이어지는 성경전체를 구성하는 골격에 기초한 것이다(Mulder, 1978-80: 100).

40년의 긴 세월에 걸친 시작(詩作)준비과정과 작가가 겪은 인생의 경험을 바탕

1) John Milton(1975), *Paradise Lost*, Scott Elledge(eds). New York : W. W. Norton& Company. p.7 앞으로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 근거하여 권과 시행만 명기한다.

으로 해서 이루어진 『실낙원』은 작품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지닌 정당성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작품은 총 12권 11,000여행으로 되어있는 서사시인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및 낙원 추방 이야기 그리고 「요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의 전쟁에 대한 예언적 기록을 소재로 삼고 있으며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밀턴은 당시 개혁주의 신앙에 기초하여 이 작품을 쓰고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독교세계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성경은 밀턴의 시에 이미지, 무대, 인물, 또는 줄거리의 전개 등을 제공해준다. 성경이 밀턴의 시에 내재하는 명확한 방법은 다양하다. 여기에는 인용, 모방, 비교, 대조 혹은 반전(패러디나 아이러니로 나타남), 성경에서 끄집어 낸 세부내용을 새로운 콘텍스트에 삽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Sims and Ryken(eds), 1984: 21).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밀턴은 『실낙원』에서 아담의 타락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사시 형태를 택해 에덴동산, 지옥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공간과 천지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 탄생에 이르기까지 장대한 시간을 취급하며 치밀한 구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 계신 섭리가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실낙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며 자유의지와 인간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본 뒤 『실낙원』 11권과 12권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정당성을 밀턴이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자유의지와 인간의 타락 및 예정론에 대한 당시 신학적 논쟁이나 주장에 대한 고찰이나 전기·역사적인 접근 방법 대신에 작품 분석을 통해 주제에 접근해 갈 것이다.

『실낙원』 11권과 12권은 작품 전체의 끝부분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낙원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미카엘(Michael)에게 그 뜻을 전달받는다. 미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믿음과 선행을 쌓고,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는 것과 추악한 인간의 미래상을 환시와 예언으로 보여주면서 아담이 저지른 원죄와 그의 자손들이 지은 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위로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담과 이브는 낙원을 떠나는 슬픔에 잠시 잠기나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들을 맡기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낙원을 떠나 새로운 인생의 방랑길에 나선다. 밀턴은 인간의 존재양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정의와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당함을 변호하고 있다.

『실낙원』에 대한 주요 관심을 인간의 타락만이 아닌 타락 후의 회복까지 연결시켜 탐구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입증하고자했던 밀턴의 의도를 뚜렷이 파악하게 하고, 작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한다. 이와 동시에 『실낙원』에 나타난 인간 회복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부분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회복의 과정에 중심을 두고 다루어진 것에 비해 본 논문은 미카엘의 비전에서 보여 준 전 인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는 죽음과 영생에 대한 본질적 의문에 진지한 해명을 추구하고 있는 『실낙원』의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II. 『실낙원』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실낙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취급하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불순종에 계속 대응하며 시간이 경과하면 마침내 독생자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 최고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이며 근원자이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늘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하고 정확해서 일시적으로는 악행을 그냥 버려두시지만 그 형벌을 완전히 말소해 버리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언제든 악은 그 대가로 형벌되며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는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 인간의 죽음을 정하셨던 것이다.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밀턴은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에 나는 두 가지 좋은 선물인
행복과 불멸을 주어 그(아담)를 창조하였다.
전자는 어리석게도 잃어버리고
후자는 단지 비통함을 영속하는 데 도움이 될 뿐
내가 죽음을 예비하기까지는. 그러므로 죽음이
그의 마지막 구제책이 되고, 혹독한 고난 가운데 시련 받으며
믿음과 신앙의 과업으로 순화된 삶 이후에
의로운 자의 부활로 눈뜨게 된 그를
새로워진 하늘과 땅과 더불어
두 번째 삶에 온전히 내맡긴다.

…… I at first with two fair gifts
Created Him endow'd, with Happiness
And Immortality : that fondly lost,
This other served but to eternize woe;
Till I provided Death ; so Death becomes
His final remedy, and after Life
Tried in sharp tribulation, and refined
By Faith and faithful works, to second Life,
Waked in the renovation of the just,
Resigns him up with Heav'n and Earth renewed. (XI 57-66)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물로 ‘행복’과 ‘불멸’을 주셨으나 인간은 이를 상실하고 죽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죽음은 죄지은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고통을 단축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어서 단련시킨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적합하도록 이끌어 가는 인간에 대한 최후의 구제책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책’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 섭리의 정당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므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낙원상실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예표 된 의지인 것이다.

밀턴은 자신이 쓴 『기독교교리』(*Christian Doctrine*)에서 인간에게 명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자유에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유지의 조건이요 상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Vol. XV 115). 가드너(Helen Gardner) 또한 선악과에 대해 “금단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서약이요, 증표로써 모든 자연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93).

도덕적 자유원리는 밀턴이 가지는 신학사상의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에게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밀턴은 『실낙원』 3권 103행에서 107행에 이르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 근본동기라고 볼 수 있는 자유의지의 필연성을 수사가 곁들인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자유롭지 않다면 참된 충성이나 변함없는 믿음이나
 사랑을 어떻게 신실하게 입증할 수 있었을까
 나타나는 것은 단지 필요에 의해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뿐
 그들이 그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복종에서
 그들은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나는 어떤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는가?

Not free, what proof could they give sincere
 Of true allegiance, constant Faith or Love,
 Where only what they needs must do, appear'd,
 Not what they would? What praise could they receive?
 What pleasure I from such obedience paid, (III 103-107)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랑이 완전히 무의미하며 순종에도 아무런 뜻이 부여되지 않는다. 강제에서 오는 복종은 굴종이요, 심리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 마음에 없는 허식이며 노예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갖 도덕에 앞서서 먼저 자유의 기능이 선결문제이다. 인

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밀턴은 아담의 거룩한 얼굴에 빛나는 창조주의 모습을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넘쳐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IV 291-295).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원초적으로 완전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타락 이전의 사람의 원래 상태가 완전했다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의문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밀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죄 없고, 순진하고, 바르고, 순결하게, 즉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완전은 절대적이거나 불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하게 만드셨으나 불변한 것으로 만드시지는 않았으며,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으나 참고 견디는 것은 인간의 힘에 맡기신 것이다(V 524-526). 지음 받은 인간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완전성과는 달리 상대적이며 조건적이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단 한 가지 “낙원에 심겨진 온갖 과실을 맛보되 생명나무 곁에 심어진 “지식의 나무”(Tree of Knowledge) 열매만은 맛보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 하는 것이었다(IV 420-424).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면 그 완전성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고, 만일 불순종하여 그 금지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하게 만들어 졌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순종을 나타내는 유일한 징표였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반면에 한 가지 손쉬운 충성, 곧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것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세워진 사랑의 법이기도 했다. 이 사랑의 법을 어기거나 떠날 때 창조의 질서는 파괴되고 그 법을 세운 자에 대한 불순종이 되므로, 이 사랑의 법을 버린 자는 완전성을 유지할 수 없고 마침내는 높은 곳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V 535-541).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법을 지킬 것인지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의 여부는 순전히 인간의 자유의사에 맡기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을 때, 또한 선택의 자유도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순종은 이성적 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참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이성적 선택에 의한 순종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고 어떤 강제나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유라면 참된 자유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룩한 얼굴에는
그들을 만드신 영광스런 창조주의 형상과, 진리와 지혜
엄격하고 순결한 신성이 빛나기 때문이다.
엄격하지만 참된 자유에서 나온

…… , for in their looks Divine
The image of their glorious Maker shone,
Truth, wisdom, sanctitude severe and pure,
Severe, but in true filial freedom placed ; (IV 291-294)

인간의 참된 권위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음으로 인해 야기되며, 이것으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존재가 되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이 되고 우주의 창조자, 역사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것은 설사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낙원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함을 입증한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선택을 잘못된 인간에게 귀결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의에 속하도록
만들어졌기에 그들의 창조주나 그들의 창조
또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 비난함은 부당하다
마치 예정이 그들의 의지를 지배하여
절대적인 하늘의 명이나 빼어난 예지로
처리한 것 처럼. 저희들 반역은 스스로
정한 것이니 나는 아니다. ……

They therefore as to right belonged,
So were created, nor can justly accuse
Their maker, or their making, or their Fate;
As if Predestination over-ruled
Their will, disposed by absolute Decree
Or high foreknowledge ; they themselves decreed

Their won revolt, not I ; …… (III 111-117)

밀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므로 타락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자유의지란 필연과는 독립된 개체이다. 만약 자유의지가 필연의 조그마한 그늘에 가려져 인간의 의지에 거슬리도록 강제 당한다면 인간은 필연의 부속물이 되는 것이요 모든 책임은 그 자체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것은 스스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인격의 바탕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예견하고 계셨지만 그 예견이 인간의 타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로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여 드디어 그 악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다(III 122-124).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탄에게 유혹되어 하나님의 계율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셨다 하더라도 선택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인간의 낙원상실은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운명의 주인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요 인간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와는 무관함이 입증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가져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섭리 안에서 정당하게 역사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하나님 명령의 불순종한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고 심판은 임의대로 행하시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분”이 되신다 (Burden, 1967: 36).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지만 공의에 따라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대신하여 다른 “능력 있는 자”가 자진하여 죽음으로써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다(III 210-212).

죽음의 처지에 놓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자신이 인간의 죄

를 대속하겠다고 말한다.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인간으로 보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에게 내리실 것을 요청한다(III 236-241). 그리스도는 사탄과 죄와 죽음을 멸하고 속죄한 자의 무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께 완전한 기쁨을 드릴 것을 말한다(III 260-265). 하나님은 성자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성자의 죽음으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하신다(III 285-294).

아담 한사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듯이 성자로 인해 온 인류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인간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였던 인간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고, 불순종으로 인해 받을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로마서 5 : 18 ; 고린도전서 15 : 22).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타락해 죽게 된 인간에게 속죄와 회복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었다.

하나님은 무한한 선하심과 은혜로 인간을 악에서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하신다.

아 무한한 선, 광대한 선하심
이 모든 선을 악에서 배출하시고
악을 변화시켜 선으로 만들다니
처음 창조 때 어둠에서 빛을 가져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다. 나는 의혹에 가득 차 서 있다.
내가 범하고 내가 야기한 죄를 이제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더 많은 선이 우러나와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더 많은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노 넘어
그 은혜 충만하심을 기뻐할 것인가.

O goodness infinite, goodness immense!
That all this good of evil shall produce,
And evil turn to good ; more wonderful
than that which by creation first brought forth

Light out of darkness! full of doubt I stand,
 Whether I should repent me now of sin
 By me done and occasioned, or rejoice
 Much more, that much more good there of shall spring,
 To God more glory, more good will to Men
 From God, and over wrath grace shall abound. (XII 469-478)

아담이 금단의 과일을 먹은 것은 창조물 중 유일한 이성적 동물로서의 범법행위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좌절시킨 것으로 그 죄악은 크다. 이 행위 때문에 전 인류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나 이 타락이 없었던 거라면 그리스도의 성육과 구원은 없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함이 실천되어 인류에게 전해질 수도 없었다. 역설적이지만 낙원상실은 반드시 후회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최후상태 즉 인류역사의 종말이후의 영원의 세계는 첫 에덴동산 보다 더 복되고 도덕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증거 한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은총은 최대의 것이며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죽음에 해당하는 악을 이기고 선을 가져올 것을 미리 예견하셨다. 악 그 자체는 선은 아니지만 악의 존재해야 선함이 의미가 있다. 만약 악이 없어야 했다면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타락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와 인간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죄를 범했을 때 바로 그들의 자유의지가 창조주의 뜻에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은 벌하기로 예정한 자를 벌하고 은총을 베풀기로 정한 자에게는 구원을 주기로 예정하심으로 악을 선하게 이용하셨다. 때때로 우리들은 ‘만약 타락이 없었더라면 이직도 우리가 낙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겠는가?’ 반문한다. 그러나 밀턴은 두 번째 낙원, 즉 천국이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만약 타락이 없었더라면 에덴은 인류 모두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넓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태어나기를 기다려야만 했을 지도 모른다. 결국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은총의 요인이 된 것이다. 상대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더 강화되었다.

정신적 투쟁에 대한 밀턴의 적극적 태도는 선악의 분별을 지성인 최고의 가치로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 악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밀턴의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올바른 이성’의 빛은 악을 물리치고 선을 선택하리라는 것이다. 결국 밀턴은 “다행스러운 타락”(Felix Culpa)을 믿었지만, 이것은 타락을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타락은 신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서 개탄할 일이지만 신의 무한한 자비에 힘입어 그 타락이 결과론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다는 역설을 통해 신학적 난제를 풀어보려는 시도이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로마서 5:20)”는 사도 바울의 역설이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밀턴은 아담의 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행스러운 타락”의 역설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타락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더 풍성해야 했다. 만약 타락에 의해 우리 자신을 잃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실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었고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들은 아담의 순수성보다도 더 많은 은총을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의 불행에 작용하여 본래의 순진함보다 더 기쁘고 쓸모 있는 것이 되게 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흔 아홉의 의인보다도 회개하는 한 죄인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듯이 “구원의 상태는 순전함의 상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Patrides, 1966: 68).” 밀턴이 이해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계획하여 자신의 목적에 따라 창조하고 보존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타락을 자초했을 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전보다 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인간을 회복시킴으로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III. 『실낙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당성

『실낙원』 11권, 12권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섭리와 자비와 은총의 기록 이외에 상대적으로 죄와 그로 인한 사망, 최악의 세계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만약 마지막 두 권에 나타난 환시들이 공포와는 별도로 행복과 승리만을 강조했다면 아담이 너무 안이하게 죄와 죽음을 받아들이어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느라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아이처럼 달콤하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감사히 받아드려야 할 지 그 은총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해 인간 편에서 어떤 영웅적 행위를 해야 할 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또 아담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악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는 거의 아담보다 우월함을 알게 된다. 우리와 아담사이에는 측량하지 못할 거리가 있으며 만약 『실낙원』이 만인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다는 밀턴의 원래의 의도를 달성하려면 이 거리는 제거되어야만 한다. 아담은 어두운 쪽의 세계가 자기와 하와의 단 한 번의 탐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그 결과 엄청난 죄악과 공포 그리고 죽음의 세계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도래해야함을 알아야 하고 그토록 고귀한 분이 이처럼 추악한 세상에 옴으로써 비천한 신분을 취한 것에 감격해야 한다.

기도하는 말이 능숙치 못하다면, 내가
 그의 대변자로서, 그의 화해 조정자로서
 그를 대신하여 통변하겠나이다. 그가 한 모든 일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 모두를 내게 접붙이소서. 내 공덕은
 그것을 완성하고 내 죽음은 그것을 보상하리이다.

Unskilful with what words to pray, let me
 interpret for him, me his advocate
 And propitiation, all his works on me
 Good or not good ingraft, my merit those
 Shall perfect, and for these my death shall pay. (XI 32-36)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언자로서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실 화

목제물로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증개한다. 사도 요한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한1서 2 : 1-2).”

하나님은 미카엘에게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가차 없이 쫓아내되 그들이 참으로 죄를 뉘우치면 위안 없이 보내지 말고 여자의 후손에게서 새로 시작될 새 계약을 알게 하라는 사명을 준다.

…… 왜냐하면 내가
노하신 하나님을 기도으로써 진정시키려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온 마음을 겸허히 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고 온유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내가 본 듯하고, 호의를 가지고
들어주신다는 신념이 생겼고, 평화가 내 가슴에,
그리고 당신의 씨가 우리의 적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이 내 기억에 돌아왔으니
전에는 낙심하여 생각이 안 났으나 이제
죽음의 고통이 지나가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 For since I sought
By prayer th' offended Deity to appease,
Kneeled and before him humbled all my heart,
Methought I saw him placable and mild,
Bending his ear ; persuasion in me grew
That I was heard with favor ; peace returned
Home to my breast, and to my memory
His promise, that thy seed shall bruise our foe;
Which then not minded in dismay, yet now
Assures me that the bitterness of death
Is past, and we shall live. …… (XI 149-158)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분명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점과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기억에 되살아났음을 상기시킨다. 이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는 약속이다(창세기 3 : 15).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수난을 했으나 예수는 사탄의 머리를 치고 부활함으로써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킨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밀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담을 추방시키거나 대신 예수를 보내는 자비로 공의로우시며 정당하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인간의 죄악은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인간자신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는 밀턴은 자유와 악한 폭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말하고 있다(Martz, 1966: 184).”

그에게 미카엘은 말한다. 당연하다, 그대가
 그 아들을 미워함은. 정당한 자유를
 억압하려고 조용한 인간의 상태에 이러한 고통을
 가져온 그자를. 그러나 동시에 알라,
 그대의 원죄 이래 참된 자유는
 상실되었음을. 그것은 항상 바른 이성과
 더불어 살며 갈라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이 어둡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즉시 터무니없는 욕망과
 갑자기 일어선 정욕이
 이성에서 주권을 빼앗고 지금까지 자유롭던
 인간을 노예화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내부에서
 부단한 힘에게 자유 이성을 통치토록
 허용하면, 하나님은 정당한 판단으로 그를
 밖으로부터 폭군에게 복종시키고, 그 폭군들은 종종 인간의 외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한다. 억압은 반드시 있다,
 그렇다고 억압자에게 변명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때로 백성들은 이성이라는 덕으로부터
 아주 낮게 타락하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
 정의가 거기에 치명적 저주까지 곁들여

그들에게서 그들의 외적 자유를 박탈한다,
그들이 내적 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

To whom thus Michael. "Justly thou abhorr'st
That Son, who on the quiet state of men
Such trouble brought, affecting to subdue
Rational Liberty ; yet know withal,
Since thy original lapse, true Liberty
Is lost, which always with right Reason dwells
Twinned, and from her hath no dividual being :
Reason in man obscured, or not obeyed,
Immediately inordinate desires
And upstart passions catch the government
From reason, and to servitude reduce
Man till then free. Therefore since he permits
Within himself unworthy powers to reign
Over free reason, God in judgement just
Subjects him from without to violent lords;
Who oft as undeservedly enthrall
His outward freedom : tyranny must be,
Though to the tyrant thereby no excuse.
Yet sometimes nations will decline so low
From virtue, which is reason, that no wrong,
But Justice, and some fatal curse annexed
Deprives them of their outward liberty,
Their inward lost ; …… (XII 79-101)

진정한 자유는 이성과 함께 결부되어 존재하는 데 인간은 원죄로 인해 이 자유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준 자신의 형상 중 일부인 그 이성이 흐려지거나 그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조상 하와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 한 입을 먹게 한 무절제한 욕망과 갑자기 부풀어 오른 정욕이 이성으로부터 주권을 탈취하여 인간을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한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적 오류에 의해 타락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완전성을 상실케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생각하고 지배하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그것에 지배를 받고 순종하여야 할 요소가 있다. 사색하고 다스리는 요소를 이성이라 한다면, 지배를 받고 순종하여야 할 요소는 감성이라 할 수 있다. 이성이나 의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욕과 격정이 자유롭던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프라이(Northrop Frye)는 “의지는 이성과 정욕, 둘 중 하나의 하수인이 되어야하며,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지는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한다(73).

밀턴은 아담은 사색과 용기 즉 이성이 강하고 하와는 온순함과 우아함 즉 감성이 강하다고 주장한다(IV 296-299). 8권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 데 창조의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곧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놀라움과 기쁨으로 위대한 창조주를 찬양했지만, 하와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VIII 5-12 ; 40-50). 즉 아담은 이성과 지력을 통해 즉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인식했지만, 하와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오직 반사의 빛을 통해서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밀턴은 아담은 이성이 강한 존재였고, 하와는 감성이 강한 존재였다는 것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성이 감성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존재구조의 위계질서는 무너지고 거기서 타락이 비롯되는 것이다. 9권에서 감성적 존재인 하와가 이성적 존재인 아담의 지배를 떠나 홀로 있을 때 뱀은 그녀를 유혹했고, 유혹받은 그녀는 쉽사리 그 꾀에 넘어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범하게 된다(IX 781-791). 한편 하와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담은 그녀 없는 에덴은 황량한 숲과 같을 것이며 자신과 하와는 한 몸이라는 이라는 생각과 상실과 배반에 하와와 함께 할 것을 결심 하고 하와가 원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취하게 된다(IX 995-998). 이것은 지극한 사랑의 행위 같기도 하지만, 다스릴 요소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요소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이 감성에 동화되어 마비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여 분별력을 잃고 사랑의 명령을 왜곡하므로 영혼의 위계질서는 무너지고 그로부터 죄는 싹트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결국은 다스릴 자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의 관계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운 한 가지 금지 명령은 그 관계를 표층적으로 표시한 것

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지켜야 할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거리, 유지하여야 할 정당한 관계를 망각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그릇된 판단을 하고 창조주에게 불순종하였다. 이 불순종이 곧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인간은 그 완전성을 상실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한 결과는 아담과 이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그 영향아래 놓이게 되었다. 자신의 죄가 자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담은 이를 한탄한다.

..... 아 어째서
전 인류가 한사람의 과오로 죄 없이 벌을 받아야 하는가?
만약 죄 없다면? 그러나 내게서 나가는 자들은,
마음도 의지도 모두 부패하여 나와 똑같은 짓을
할 뿐 아니라, 그런 의지를 가진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어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 Ah, why should all mankind
For one man's fault thus guiltless be condemned,
If guiltless? But from me what can proceed,
But all corrupt, both mind and will depraved,
Not to do only, but to will the same
With me? How can they then acquitted stand
In sight of God?

(X 822-828)

아담에게서 나오는 자들은 마음과 의지가 모두 부패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되고, 도리어 죄를 짓고자하는 하는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 거룩함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 받은 인간이 범죄하게 됨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자리를 잃고 죄의 영향아래에 놓인 타락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경솔함과 천박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때문에 인

생의 중요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하므로 정욕이 그를 기만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한번 정욕이 지배하게 되면 정신의 혼돈을 초래하고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인간은 자유로부터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정치적 자유마저 속박 당하게 된다. 밀턴은 스토이학과로부터 인간 정신 내면에 있어서의 이성과 정욕의 갈등에 대한 “이데아”(idea)를 얻었으며 덕의 도구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확신하였다. 정욕의 힘이 자유로운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해 이들 인간이 상실한 내적 자유뿐만 아니라 외적 자유마저 빼앗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 할 때마다 진노하여 이들을 원수의 손에 붙이고 또 이들이 뉘우치고 돌이킬 때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해주신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증된다. 밀턴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약 40년간 방황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이 아니고 장래의 과업에 대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XII 215-220). 이것은 유대인들이 곧바로 강한 ‘가나안’(Canaan)족과 부딪혔을 때 두려움에 굴복하여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견에 따른 정당한 방법이다(출애굽기 13 : 17-18).

미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예표에 대해서 자신의 후손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될 이 땅에서 임하게 되는 주의 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아담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도 왜 지상에 많은 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율법의 존재는 이 세상에 것처럼 많은 죄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거하겠는가” 반문한다(XII 280-284). 이에 미카엘은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명시하고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데 있다고 대답한다(XII 289-299).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은 인간 세상의 통치와 관련된 민간정의에 관한 것과 예정된 후손 즉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에 의해 인류의 구원이 성취됨을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들에게 가르치려는 종교의식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한 것이다(XII 230-235). 밀턴은 양과 염소에 의한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형과 그림자라

고 말한다. 율법은 불완전한 것으로 때가 이르면 그림자 같은 모형에서 진리로 엄격한 율법의 부과에서 관대한 은총의 자리로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은 불완전하게 나타나고, 단지
 때가 이르면 좀 더 나은 언약 앞에 그들을
 내어주기 위해서만 그것이 부여된다. 그때까지의 훈련은
 그림자같은 형체에서 진실로, 육으로부터 영으로,
 엄격한 율법의 부과로부터 풍부한 은혜의
 자유로운 받아들임으로, 노예의 공포로부터
 아들로, 율법의 과업으로부터 신앙의 일로 변한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다만 율법의 사역자에 불과하니
 저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없고,
 이방인 예수라 부르는 여호수아만이 그의 이름과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그는 곧 적인 뱀을 죽이고 세상의 황야를 거쳐
 오래 방황하는 인간을 영원한 안식의 낙원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자이다.

So law appears imperfect, and but giv'n
 With purpose to resign them in full time,
 Up to a better cov'nant disciplined
 From shadowy types to truth, from flesh to spirit,
 From imposition of strict laws, to free
 Acceptance of large grace, from servile fear
 To filial, works of law to works of faith.
 And therefore shall not Moses, though of God
 Highly beloved, being but the minister
 Of law, his people into Canaan lead;
 But Joshua whom the Gentiles Jesus call,
 His name and office bearing, who shall quell
 The adversary Serpent, and bring back
 Through the world's wilderness long wandered Man
 Safe to eternal Paradise of rest. (XII 300-314)

밀턴은 기독교인들은 의식적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율법의 불완전성은 모세 자신에 의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율법의 모형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었고 결국 ‘여호수아’(Joshua)가 이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여호수아는 ‘예수’(Jesus)와 같은 이름이며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율법의 불완전성은 그 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완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의 조건에 의해 정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적 힘과 공의가 자연과 옛 언약에 나타난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이것들에 추가하여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약성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지니는 정당성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의해 변증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끝으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공의로움을 다시 한번 입증하신다.

그러나 곧 부활하신다. ‘죽음’은 그에게 오랜 동안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사흘째의 여명이
돌아오기 전에 셋별은 그가 여명처럼 새롭게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리라. 인간을
죽음에서 되사시는 속량의 지불,
인간을 대신하는 그의 죽음, 그 은혜를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신봉하는 자들은
무시함 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

But soon revives, Death over him no power
Shall long usurp ; ere the third dawning light
Return, the stars of morn shall see him rise
Out of his grave, fresh as the dawning light,
Thy ransom paid, which man from Death redeems,
His death for man, as many as offered life
Neglect not, and benefit embrace
By faith not void of works : …… (XII 419-426)

사할째의 여명이 돌아오기 전에 셋별들은 그리스도가 여명처럼 새롭게 무덤에서 일어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담이 미카엘을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인간구원의 예표인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불의를 고발하여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율법의 저주를 모두 받아들여 율법의 종말이 되셨다. 또한 전 인류의 죄를 감당해 스스로 죄의 값으로 죽음을 감수하여 속죄하시므로 우리로 의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11권, 12권에 나오는 모든 고난에 대한 구원과 해방이요, 영혼의 회귀와 상승이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기에 구원받은 영혼은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다.

미카엘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비극적 결과를 인류역사의 비전을 통해 아담에게 말해준다. 아담의 죄는 첫 번째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가인의 살인과 그로 인한 아벨의 죽음을 본 아담은 “죽음의 공포와 추악함”에 경악한다(XI 462-465). 죽음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생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적 결과이다. 이후 계속해서 미카엘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영향아래 악을 일삼는 인류의 모습을 말해준다.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해 일절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많은 도구와 연장을 만들고 음악과 쾌락에 도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 도구와 연장을 만드는 기술로 무기를 만들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살육과 폭력을 일삼게 된다(XI 679-680). 이러한 폭력과 파괴는 노아 홍수 직전 세대에서 도덕적 부패로 심화 되어 환락과 사치와 방탕, 매춘의 성행 및 능욕과 간음 그리고 쾌락과 나태와 안일과 탐식과 욕욕이 성행하게 된다(XI 791-796).

이러한 인류의 죄로 인한 부패를 하나님은 홍수로 끝내시고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지만 인류는 또 다시 죄를 짓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된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아담과 이브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인간들은 죽음과 병고를 겪게 되고, 폭력과 상해, 도덕적 부패, 우상숭배 등의 타락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악은 역사를 통해 계속될 뿐 아니라 심화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져 죄의 세력아래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였다. 미카엘이 아담에게 보여주는 비전은 “평화에서 타락으로 그리고 전쟁과 폭력

의 심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평화와 타락으로 순환되는 인간 역사의 진행방식”을 나타내고 있다(Summers, 1966: 204).

니콜슨(M. H. Nicholson)은 노아를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세운 ‘제 2의 세계’가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결된다”고 말한다(135). 노아의 의가 새로운 외적세계의 창조를 촉진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의는 완전한 내적세계의 창조를 보여준다.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새로운 언약의 기초한 것이다.

미카엘의 목적은 아담에게 역사를 해석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마음속의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미카엘은 아담에게 단순히 기억할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스스로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거듭해서 아담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카엘은 라파엘이 천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아담에게 가르친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Entzminger, 1985: 81).

미카엘은 아담이 이성과 감성으로 자신이 행한 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덴에서의 추방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미카엘을 통해서 아담은 희망과 인내와 노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강조한 인류의 영적 역사에 대한 윤곽을 파악해 간다.

밀턴은 『실낙원』11권과 12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성의 산물로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그릇된 선택으로 인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부활을 통해 인간에게 소망을 줌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하고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이 공의롭고 정당하심을 입증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밀턴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구원과 회복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의 섭리를 다루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기독교 작가이다. 『실낙원』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여 창조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당화하려는 밀턴의 계획이 기독교적 상상력과 성경이 연결되어 어우러져 나타난 서사시이다. 밀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적 비전은 타락한 인류를 최초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낙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관한 밀턴의 견해는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미리 예지했으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겼다는 것이다. 아무도 미리 구원이나 멸망을 택하지 않았고 인간에게는 모두 구원의 기회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탁월성 때문에 특별히 선발되어 진다고 생각했다. 아담의 타락은 혐오의 대상이지만 이 타락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성육과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여 타락전보다 더 영화롭고 은혜로운 상태로 들어 올려 인간회복을 달성하는 것이 밀턴이 제기한 악에서 선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함을 변증해 주는 원리이다. 밀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순종하여 내세의 낙원과 내면적 낙원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하였으며, 『실낙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가 인간에게 정당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임재”(Divine Presence)를 볼 수 있었고, 또 화려한 천상의 빛을 발하는 천사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 똑바로 선 존재였으며 이성과 능력으로 “신을 닮은”(Divine resemblance), 그래서 하늘과 교통할 수 있을 만큼 고귀하고 선함을 지녀 “하나님 주권자를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 분의 섭리를 감사히 인정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다. 아담의 거룩한 얼굴에 빛나는 “창

조주의 모습은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가득하다(VI 291-295).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원초적으로 완전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타락 이전의 사람의 원시 상태가 완전했다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이에 대해 밀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죄 없고”(VI 61 ; IX 659), “순진하고” (IV 11, 313, 320 ; V 209, 384, 445-446 ; IX 373, 411, 459), “바르고” (V 524), “순결하게” (V 109 ; VIII 506, 623), 즉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완전은 절대적이거나 “불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V 524-526).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완전성과는 달리 상대적이요 조건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그 조건은 단 한 가지 순종뿐이었다(IV 420-424).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면 그 완전성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고, 만일 불순종하여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하게 만들어 졌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순종을 나타내는 유일한 징표였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반면에 한 가지 손쉬운 충성, 곧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것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세워진 사랑의 법이기도 했다. 이 사랑의 법을 어기거나 떠날 때 창조의 질서는 파괴되고 그 법을 세운 자에 대한 불순종이 되므로, 이 사랑의 법을 버린 자는 완전성을 유지할 수 없고 마침내는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 행복을 잃고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V 538-541).

그러나 그 사랑의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즉 순종하고 안 하고는 순전히 인간의 자유의사에 맡기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을 때, 그에게 또한 선택의 자유도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순종은 이성적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참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이성적 선택에 의한 순종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고 어떤 강제나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유라면 참된 자유라 할 수 없다.

자유가 선택의 자유라면, 필연적으로 그 속에는 악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도 내

포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인간은 자유로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도 있고, 또한 자유로이 선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는, 필연을 위해 봉사하는 인형이 되고 만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 이런 악예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함께 인간에게 부여된 감성을 자극하는 유혹의 손길이다. 따라서 자유는 필연적으로 유혹의 존재를 전제하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유혹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다. 만일 낙원에 금단의 나무가 없었다면 아담의 자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 이러니컬하게도 금단의 나무열매는 아담 속에 내재하는 반역예의 가능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적 오류에 의해 타락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완전성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담의 불순종, 낙원의 상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로 무산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원래의 계획은 창조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이어진다. 인간의 타락을 예견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다시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킬 것이며 타락한 세상을 “의로운 자들이 살 곳, 그 곳에서 황금의 행위가 열매 맺는 황금의 시대를 보게 될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신다(III 335-7).

세상 만물과 모든 일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암흑의 흥계를 제멋대로 행하도록 사탄을 내버려 두신다(I 209-220). 그것은 오히려 유혹당한 인간에게는 무한한 선과 은총과 자비를 베풀고 흥계를 자행한 사탄에게는 그 이상의 파멸과 분노의 소나기를 내리기 위한 것이니, 어둠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나 그곳에서 벗어나 암흑의 흥계를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사탄의 자의적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의 악행이나 인간의 타락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예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적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해 밀턴은 하나님이 무지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지음 받은 자 - 사탄이건 인간이건 - 의 자유의지를 절대 존중하되 중국에는 자신의 최종적 뜻에 굴종시킴으로써

악으로부터 선을 만들어 내고 보다 나은 은총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물의 근원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지만, 그의 공의는 엄정하고 강렬해서 스스로 세운 어떤 법칙도 파괴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는 악행까지도 버려두시지만 그 형벌을 완전히 말소해 버리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악은 형벌되고 선은 승리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는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 인간의 죽음을 정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비는 죽음의 형벌을 영원한 구속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외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죽음은 최후의 구제가 된다(XI 61).”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을 통하여 자비와 정의를 조화시키신다.

밀턴은 인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해 초래된 인간의 비극적 상황을 묘사한 뒤 인간회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회복은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과 인간의 하나님 형상 및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밀턴은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죽음 아래 놓일 수 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영광스런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한다(*Christian Doctrine* XV. 251). 밀턴에게 회복은 처음 창조되었던 것 보다 더 나은 지경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낙원』의 11권과 12권에서 다뤄지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실낙원』의 마지막 두 권을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 조명한 프린스(F. T. Prince)는 “천사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게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성격과 함께 예언적 성격을 띤 이 부분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정당화하려는 밀턴의 계획에 있어서 얼마나 명료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Prince, 1967: 235). 『실낙원』의 마지막 두 권은 낙원을 떠난다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한 부끄러움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마침내 이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그 뜻에 순종해 가는 아담의 성장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Sasek, 1965: 345 ~ 346).

『실낙원』의 마지막 두 권은 『실낙원』서두에서 밀턴이 밝힌 하나님의 정당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여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 미카엘의 입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밀턴은 『실낙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범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천사 미카엘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해하고 한없는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기나긴 순례자의 길로 나아가는 아담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불완전한 “영화”(glorification)에서 완전한 “영화”로, 죄의 삶인 죽음을 정복시킨 뒤 “제 2의 삶”으로 인간을 인도하는 하나님 계획과 섭리의 정당함을 변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조신권(2005), 『청교도 신앙과 문학의 탐구』. 서울 : 총신대학교출판부.
_____(2002), 『청교도 애국시인 존 밀턴의 문학과 사상』. 서울 : 도서출판 동인.
최종수(1997), 『기독교문학 고전의 이해』. 서울 : 현대지성사.
Burden, D. H.(1967), *The Logical Epic*.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Bush, Douglas(1970), “Paradise Lost in Our Time : Religious and Ethical Principles”, *Modern Essays in Criticism*. A. E. Baker(eds). London : Oxford UP.
Corns, Thomas N,(eds).(2003), *A Companion to Milton*. Malden : Blackwell Publishing.
Entzinger, Robert L.(1985), *Divine World : Milton and the Redemption of Language*. Pittsburgh : Duquesne UP.
Ferry, A. D.(1967), *Milton's Epic Voice*. Cambridge : Harvard UP.
Frye, Northrop(1965), *Five Essays on Milton's Epics*.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Gardner, Helen(1971), *A Reading of Paradise Lost*. London : Oxford UP.
Martz, L. L. (eds).(1966), *Milton :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 Cliffs : Prentice Hall.
- Milton, John(1975), *Paradise Lost*, Scott Elledge(eds). New York : W. W. Norton& Company.
- _____ (1973), *Christian Doctrine*. in *Complete Prose Works of John Milton*, Maurice Kelley(eds), John Carey(tran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Mulder, John R. (1978-80), Jr. *A Milton Encyclopedia vol. 8*. William B. Hunter, Jr.(eds). Lewisburg ; Bucknell University Press.
- Nicholson, M. H.(1965), *A Reader's Guide to John Milton*. London : Lowe & Brydone Ltd.,.
- Patrides, C. A.(1966), *Milton and Christian Tradition*. London : Oxford UP.
- Prince, F. T.(1967), "On the Last two Books of *Paradise Lost*", *Milton's Epic Poetry : Essays on Paradise Lost and Paradise Regained*, C. A. Patrides.(eds). London : Penguin Books.
- Rudrum, Alan(eds.)(1969), *Milton*. London : Macmillan.
- Sasek, Lawrence A.(1965), "The Drama of *Paradise Lost*, Books XI and XII." *Milton : Modern Essays in Criticism*, Arthur E. Baker(eds). Oxford : Oxford UP.
- Sims, James H. and Leland Ryken(eds).(1984), *Milton and Scriptural Tradition : The Bible into Poetry*. Columbia : Univ. of Missouri Press.
- Summers, Joseph H.(1966), "The Final Vision," *Milton :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Louis L. Martz.(eds),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Abstract

Milton's Defence of God's Justification in *Paradise Lost*

Hyun-Ho Shin(Baekseok University)

The Bib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stering the spirit and the character, the climate of religious opinion, which shapes Milton's life and attains full poetic flowering in *Paradise Los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lluminate Milton's opinion on the right ways of God to man.

In the beginning of *Paradise Lost*, Milton makes clear that he intend to sing both the restoration of man by one greater man and recovery of the lost paradise to justify the way of God to men.

Milton does not seem to distinguish the world before the Fall from the ideal society to be restored at the end. His apocalyptic vision is therefore a poetic attempt to fulfill God's ultimate plan or to "justify the ways of God to men" by connecting the first and the last, so that we can see a return to Paradise that is lost forever with the Fall of Adam and Eve.

Since the fall of Adam, all mankind has proceeded to evil ways and made sins against God. Milton indicates that the way of restoration of man arises from the grace of God, who means to deliver man out of the fallen state through His only Son, Christ. To all who believe in Christ's redemption, God proclaims the release from sin and death. On the "Salvation" of man, Milton puts the emphasis on the unmerited grace of God, while on the "sin", he stresses it depends on the man's freedom of the will.

Paradise Lost Book XI and XII deal with the evolution of Adam's consciousness, so this section become a study of Adam's development from his first despair at the thought of death, through a succession of hopes and fears, to a comprehension of the final victory of good over

evil and final understanding of God's purpose and reconciliation with God's Will, Providence.

Milton concludes his poem with a relatively straightforward summary, first through vision and then through Michael's narrative, of the history of Adam's heirs from the Fall to the coming of Christ and beyond.

Key Words ; *Paradise Lost*, Milton, Providence, Fall, Restoration, redemption, justification